

지역전형·복수지원 확대... 신입생 모시기 진담

광주·전남 대학 입학전형 개편
고교생 감소·수도권 집중 대비
인기 학과 지역출신 정원 늘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역 대학의 입학생 유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학생 질벽' 현상에 '수도권 집중화'까지 맞물리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막고 타 지역 학생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학측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지역인재전형 학과 확대=조선대도를 해 대입전형 중 의·치의예과 등 2개과에서만 모집했던 지역인재전형을 2019학년도 대입부터 26개 학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모집 인원도 2개 과에서 48명만 뽑던 데서 26개과 121명으로 늘렸다. 의·치의예과 뿐 아니라 혁신도시 내 IT·전기·전자 계열 기업들과 첨단산업단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산업과 연계,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전기·토목·전자·컴퓨터·정보통신·환경·재료공학·생명·식품·중국어문화과·미래자동차·기계공학과 등을 취업 경쟁력이 높은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했다.

가뜩이나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광주대도 247명에서 512명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크게 확대했다. 광주대는 또 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출신은 기본, 타 지역 학생도 잡아라?=전남대는 입학생 90% 이상이 지역 고교 출신인 점을 감안, 지역인재전형



지역 대학들이 입학생 수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학생 유치에 비상이 걸리면서 신입생 확보 전략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대여고 3학년 학생들이 지난 4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2019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현황 (단위: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대학명	총인원	의·치·한의예과
광주교대	20	
광주대	512	
동신대	508	
목포대	170	
순천대	365	
전남대	472	48
조선대	159	89

으로 뽑는 인원을 줄이면서 일반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전남대의 올 해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590명,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472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대

신, 전남대는 의·치의예과의 지역인재전형은 38명에서 48명으로 늘려 뽑고 일반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확대(2018학년도 350명→2019학년도 470명)기로 했다.

타 지역 학생들도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집토끼' 뿐 아니라 '산토끼'도 잡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목포대도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기존 362명에서 170명으로 줄이고 타 지역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한 종합일반전형을 신설, 170명을 뽑기로 했다. 순천대도 2019학년도 대입의 지역인재전형을 365명(2018학년도 377명)으로 줄이는 대신, '창의인재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뽑는 인원을 9명에서 170명으로 대폭 늘려 지역 고교 출신 학생 뿐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까지 유치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복수 지원도 허용=동신대 입학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 중 1개, 일반전형(교과·지역인재전형) 중 1개

씩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지역인재전형을 크게 늘린 점 등 2가지다.

올 해 수시모집부터 적용되는 복수 지원의 경우 희망 학과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입학생 수를 걱정하는 최근 지역 대학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입학생 수가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질 위기에 처한데다, 지역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수도권 집중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동신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생을 포함한 적극적인 학생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담겼다는 것이다.

현재 고 2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9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508명(2018학년도 114명)으로 늘린 것도 무관하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가 지난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했던 진로진학박람회,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과를 찾아 실험 등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교수와 심화 수업 '꿈꾸는 공작소' 인기

광주교육청, 참가자 모집 완료

'빛발치는 문의 전화, 치열한 수강 경쟁, 기간 연장...'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빛발치는 문의 전화로 곤욕을 치렀다.

대학 입학에 앞둔 고교 재학생들 간 수강 붐이 일면서 학교·학생들의 신청 경쟁도 치열했기 때문이다.

"왜 수강 인원이 이렇게 적냐", "개인적으로 수강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은데 왜 동아리만 신청하느냐", "모집 기간이 끝났더라도 참여 인원을 더 늘려줄 수 없느냐..." 등 온갖 문의가 쏟아졌다.

광주교육청이 참가자를 모집한 30개 강좌 대부분이 정원을 훌쩍 넘겼다. 교육대 진학을 목표로 했거나 의·치대 진학을 염두에 둔 이공계열 학생들로 인해 ▲광주교육대의 '창의융합형 초등교사를 꿈꾸다' ▲전남대의 '생물은 위대한 스승-생물모방 원리와 응용' 등 프로그램은 1차 모집 기간에만 정원을 훌쩍 넘겼다.

광주여대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그대들에게', 전남대의 '컴퓨팅 사고력-앱 개발', 조선대의 '빛과 색을 이용한 자연과학 탐구' 프로그램은 10~30명인 정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학생·동아리 팀이 몰려 추첨을 통해 수강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미흡해 폐강된 것은 호남대의 '알기 쉬운 전기전자 원리 및 응용사례를 통한 이해' 등 4과목 뿐

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치열한 수강 경쟁과 관련, 최근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모집 비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종' 확대는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전공,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교 1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학생부에 담아내 보여 주는 게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대학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희망·진로와 관련된 심화 과정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꿈꾸는 공작소'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전문가와의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한층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

수강 기록이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란에 반영되는 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몰리는 데 한몫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공모·신청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심화활동을 하고 싶어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광주 고교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공계열 프로그램을 마련, 2학기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꿈꾸는 공작소' 인기 프로그램

대학교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정원
광주교대	창의융합형 초등교사를 꿈꾸다 A·B	5.8~6.30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각 25명
광주여대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그대들에게	5.8.~6.30 매주 목요일	30명
전남대	생물은 위대한 스승-생물모방 원리와 응용	5.10.~6.28 매주 수요일	10~30명
"	컴퓨팅 사고력-앱 개발	"	"
조선대	빛과 색을 이용한 자연과학 탐구	5.1.~5.25 매주 월·목	20명

동강대 교수들 '학생 상담 잘하는 법' 연구

취업난에 힘입어하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뭔가,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 됐다.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면 '평생지도교수'를 맡아 학교생활 뿐 아니라 졸업·취업 후 사회생활까지 맡아 지도·조언해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여 상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 대화법까지 배우는 시대가 됐다.

동강대는 '평생지도교수제' 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김희준 호서대 교수를 초청, 전

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생상담기법 연구'〈사진〉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법, 상담 전 준비사항 등을 알려주는 자리였다. 학생들의 공감을 이끄는 경청법 등에 집중하는 교수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동강대는 "지난해 전체 학과에 도입한 '평생지도교수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연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m²(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m²(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